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2.19.(목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	책임자	국 장	위충기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안태승	(02-3145-7130)
	금융정보보호협의회 사무국	책임자	사무국장	이찬웅	(02-3495-9700)
		담당자	팀 장	안희정	(02-3495-9710)

‘24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

1. 개 요

- 금융정보보호협의회(위원장 이세훈 수석부원장)는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,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CISO, 금융IT 보안 및 정보보호 부서장, 실무자 등 약 2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*하였음

* '24.12.19.(목), 10:30~13:10,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

[참고] 금융정보보호협의회

금융보안과 관련한 정보공유·협력 및 정책 건의·제안,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 인식 교육·홍보 지원 등을 위해 2002년에 설립된 금융보안 자율 협의체(사무국 금융보안원)로 현재 은행, 증권, 보험, 카드, 전자금융업자 등 123개 금융회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

- 금일 총회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·IT 부문 신임 이종오 부원장보의 개회사, 김철웅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, 카이스트 강병훈 교수의 특별강연*이 있었으며,

* (강연주제) 기밀 컴퓨팅기반의 안전한 금융정보보호

-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회사 유공직원 11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*(3명),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(4명), 금융보안 원장상(4명)을 수여하였음

* 신한은행 안기범 부부장, AIA생명 박상곤 부장, 삼성카드 문승규 수석

2. 디지털·IT부문 부원장보 개회사 주요내용

-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는 개회사를 통해,
-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·IT 금융혁신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 시 관련부서를 통합·확대하여 디지털·IT 본부로 격상하였음을 설명하면서
 - 디지털·IT부문이 기존의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, 금융 혁신을 주도하여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한편,
 - 그 과정에서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,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,
 -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디지털금융 주요 감독방향*을 제시하였음
- * 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적극 추진, ②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확고히 구축, ③ 디지털금융 부문 현장소통 확대, ④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맞는 시장규율체계 정립 등

[①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적극 추진]

- 먼저, 지난 8월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접수된 혁신서비스*를 신속히 심사하여, 내년 상반기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,
- * 생성형 AI 활용등 망분리규제특례 관련 총 14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접수하였으며, 현재 34건 지정완료
- 그간의 혁신서비스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산업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,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

[②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]

- 두 번째로, 금융부문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(금융보안원 등)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권 AI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,

- 금융IT 인프라 운영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견고히 하여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음

[③ 디지털 금융부문 현장소통 확대]

- AI실무협의체, IT상시협의체 등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, 생성형 AI·클라우드 등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필요한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신설·운영하는 한편,
-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권역별 CISO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현장 소통*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,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

* 데이터산업 간담회, 전자금융업자 간담회, 가상자산거래소 간담회 등

[④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맞는 시장규율체계 정립]

- 마지막으로, 기술혁신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,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업무의 범위,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,
- 특히, 기본적인 IT내부통제 미비 또는 소홀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였음

3. 금융보안원장 환영사 주요 내용

-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의 디지털금융은 일률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금융혁신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,
- 금융보안원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및 당국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정책 관련 질의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,
- AI 서비스 및 모델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지원하는 등 자율보안 체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
4. 향후계획

- 오늘 총회에서 나눈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보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
-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임